

‘생명 나누는 숭고한 약속’...광주시, 장기기증 캠페인

5개 자치구·민간단체와 장기기증 등록 상담·홍보 활동

광주시는 ‘생명나눔 주간’(9월 8~14일)을 맞아 9일 광주공원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생명나눔 주간’은 매년 9월 둘째주 일주일 간이며,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날 캠페인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 (사)한국생명사망자재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추진했다.

참여기관들은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 상담과 접수, 홍보 안내문, 기념품 등을 나눠주

며 생명나눔 확산 활동을 펼쳤다.

오후에는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과 연계해 ‘세계 자살예방의 날’(9월10일)을 맞아 생명존중과 생명나눔 실천의 가치를 함께 알렸다. 이 행사에는 광주여대 학생상담센터, 광주자살예방센터,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참여해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는 생명나눔 주간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주시 누리집,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 카드뉴스를 게재하며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생명나눔 주간’을 맞아 9일 광주공원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생명나눔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전개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고령화와 환경 변화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늘고 있지만 기증자 수는 정체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적극 동참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대병원, 집중호우 피해 성금 1470만원 기탁

임직원 자발적 모금 마련

전남대학교병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470만원을 전남도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기탁식은 9일 전남도청에서 열렸으며,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이 참석했다.

민정준 병원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칭환 부지사는 “도민을 위해 앞장서 주신 전남대병원에 감사드리다”며 “소중한 성금은 주택·상가·농어업 분야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rnews1@gwangnam.co.kr



전남도는 최근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 가졌다.

전남도, ‘제6회 푸른 하늘의 날’ 기념행사 성료

선언문 낭독·퍼포먼스 통해 실천 결의...조석준 전 기상청장 특별 강연

전남도가 유엔(UN) 지정 국제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인 ‘제6회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깨끗한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짐의 자리를 마련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동부청사 이순신 강당에서 공무원과 시민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고, 올해 주재인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를 함께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행사에서는 주제 영상 상영과 함께 대기환경 보전에 기여한 유공자 5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는 민간인 부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신숙 사무차장, ㈜포스코MC 테리얼즈 김준연 리더, ㈜진평 박미희 차장, 공무원 부문 여수시 박희민 주무관, 순천시 김나영 주무관이다.

또 청년·기업·시민단체 대표가 ‘푸른 하늘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펼치며 작은 실천을 통해 맑은 하늘을 지켜나간다는 다짐을 공유했다. 이어진 특별 강연에서 조석준 ㈜레인버드지오 회장(제9대 기상청장 역임)은 ‘기후위기시대 대한민국 기상위성으로 아시아-태평양 재난재해를 막는다’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과 우리 사회의 선택을 강조했다.

최재화 전남도 기후대기과장은 “푸른 하늘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 지켜나가기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구 기자 grnews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운행차 소음 점검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강화를 위해 호남·충청권 지자체 소속 7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공단, 운행차 소음 점검 공무원 교육

호남·충청권 70여명 대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행차 소음 점검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연속성 강화를 위해 호남·충청권 지자체 소속 7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광주시교통문화원수원에 이어 지난 4일 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서 진행된 교육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운행차 소음 관리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자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교육은 단순 법규 해설이나 행정 절차 안

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 장비를 활용한 현장 실습과 사례 중심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장실습과 토론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업무 이해도를 높였으며, 또한 QR 코드를 활용한 실시간 설문조사로 교육 참여도와 이해도를 점검하고, 향후 교육 과정 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형섭 광주전남본부장은 “운행차 소음 점검은 국민 생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교육을 통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준다. 안정적인 점검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 광산구 어룡동-제주시 연동, 자매결연 협약

광주 광산구 어룡동이 제주시 연동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9일 어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어룡동기관사회단체장협의회, 연동발전협의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해당 지역은 △문화·관광 교류 △특산품 홍보·판매로 확대 △협의회 교류 활성화 △재해·재난 시 상호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을 기념해 어룡동과 연동은 6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했다.

이주남 어룡동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시



연동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PEOPLE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함평군에 수해복구 성금 기탁

(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함평군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9일 함평군에 따르면 정경호 (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부회장을 비롯해 강권오 이사, 최치원 프로 등 관계자 3명이 최근 함평군을 방문해 수해 피해 주민들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평 출신 연맹 관계자들이 직접 고향을 찾아 전달해 의미를 더한다.

(사)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은 1만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로, 골프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정착을 목표로 각종 행사와 대회를 개최하고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소중한 성금을 전달해주신 정경호 부회장을 비롯한 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함평=최윤희 기자 6263739@gwangnam.co.kr



완도경찰, 교통사고 줄이기 총력

완도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교통안전활동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139명이 다쳤다.

주로 오후 6~10시 차대 차, 차대 자전거, 차대 경운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완도경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취약·다발 시간대 가시적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읍주단속과 안전모·안전띠 미착용, 신호·속도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이성일 완도경찰서장은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역시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결음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스포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모집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

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숙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몰래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안태복씨 별세. 안정진(대상주식회사 중국 상해사무소 대표)·소윤·재운 씨 부

친상. 강동일(KBC광주방송 서부방송센터 취재부장)씨 장인상=8일 오전. 광주시 서구 매월동 국민장례문화원 201호실. 발인 10일 오전 8시 30분. 062-606-4000.

운세 (음력 7월 19일)

48년생 병은 마을에서 생긴다
60년생 지인하고 돈 거래는 신중하라
72년생 부부 이해와 사랑이 오갈 때
84년생 자녀 문제가 순조롭게 처리된다
96년생 이성 만남이 것이 부담되지 피하라

51년생 문서로 돈 뭉개 행운을 잡는다
63년생 배우자에 갈등 문제가 해결된다
75년생 귀인 덕에 금전 운이 좋은 날
87년생 이성하고 윤행하면 노상에서 망신수
99년생 지출 줄이고 검소한 생활이 필요

54년생 주변사람에게 무관심 하라
66년생 감정이 앞서니 마찰이 생긴다
78년생 문서가 내 손에 들어 온다
90년생 일을 서두르면 틀어지게 된다

57년생 부하직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69년생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 보이라
81년생 말 다툼을 조심하라
93년생 발로 뛰면 좋은 문서를 취득한다

49년생 금전 인한 스트레스 받게 된다
61년생 충격을 받았지만 큰 탈은 없다
73년생 새로운 일을 도입하지 말라
85년생 친구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97년생 허영과 사치는 금물

52년생 마음이 너그로우면 몸 편안하다
64년생 서로 소통하며 다툼을 쌓지말라
76년생 이성하고 동성하면 망신살 뿜친다
88년생 예상하지 못한 금전이 나간다

55년생 후배 도움으로 성공적인 하루
67년생 지인과 더불어 일을 도모한다
79년생 골치 아픈 일이 생기지만 해결 된다
91년생 금전 윤행이 잘 된다고 방심말라

58년생 부동산은 좋은 계기를 마련 할 수 있다
70년생 귀인과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82년생 부모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음
94년생 사람에게 배신 당할 수 있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50년생 문서에 도장을 신중히 찍어라
62년생 사람 때문에 뜻밖에 행운을 잡는 날
74년생 배우자로 인한 손해수 조심
86년생 친구와 다툼이 있다
98년생 이성으로 인한 악육이 생길 수

53년생 추구하던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다
65년생 사업에 불굴의 투지가 필요한 시기
77년생 자금이 막히니 대책을 강구하라
89년생 처가대 친지와 동업하면 부부 불화

56년생 자녀에게 관심을 가질 것
68년생 중간에 돈 문제로 어려움이 따른다
80년생 오늘 하루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
92년생 친구 일이 허망하게 끝난다

59년생 예상치 못한 금전 지출이 생긴다
71년생 가족 화목하니 직장일 일사천리
83년생 무리한 계획의 진행은 실패
95년생 돈 쓰고 좋은 말 듣기 어렵다